

안전관리대행 사업장의 산업재해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이 만 수*

*호서대학교 기술경영학과

A Study on the Industrial Accident Improvement Measure of Company that Managed by Acting Agency

Man-Soo Lee*

*Hoseo University Department of Technology Management

Abstract

There are two kind of method to perform a safety management in industrial field. One is a management by safety manager employed in company and another one is safety management by acting agency. In case of the company that managed by the acting agency dose not coincide with the state of company and safety management performance because of the safety management is carry out by periodically.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sufficient safety management is difficult. And a company that employ a safety manager also show a low level of safety management compare with the advanced country in view of safety and health. From the statistics of accident rate of the company, it is necessary that an improved safety management through the studying and analysing a coverall matters for the company that managed by acting company.

Keywords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y Agency, Accident Protection organ, work place

1. 서 론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에 관한 역사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짧지만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나 안전보건 관리수준은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300인 미만 업체에서 90%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제조업 기준 50인 이상 회사에선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거나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행사업의 경우 대행요원들이 월 2회 방문이라는 제한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무재해를 위하여 담당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안전관리 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행사업장의 규모

도 300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일정 부분은 안전관리대행업체에서의 산업재해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율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안전관리 대행업무의 현황을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은 산안법제 15조의 4에서 명시된 안전관리 대행기관을 말한다.

안전관리 대행사업장은 사업장 별로 100인 이하 사업장은 대행요원 1인, 100인 이상 사업장은 대행요원 2인이 월 2회 방문하여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기술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까지 실시하며, 노동부에 고시된 제도를 따르거나 자율화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 대행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 대행요원들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물리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 본 연구는 2010년도 호서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이만수, 충남 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165 조형과학관 306호

M · P: 011-9413-7339, E-mail: mslee@hoseo.ac.kr

2010년 10월 20일 접수; 2010년 12월 17일 수정본 접수; 2010년 12월 17일 게재확정

Table 1. 안전관리 대행기관 현황

연도	대행기관	대행사업장 수
1996	38개소	
2003	67개소	11955 개소
2008	86개소	10675 개소

- 2010. 고용노동부

정규직 안전 관리자가 상주하는 회사에서도 안전보건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아직 못 미치는 재해를 통계를 볼 때 안전관리 대행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 안전 관리자가 상주하는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조사결과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대행 사업장과의 비교분석으로 안전보건의식 설문조사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안전관리 대행 기관은 1996년에 지정조건이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38개소에 불과 하였다. 1996년 이후 영리법인으로 확대되면서 2003년에는 6년 만에 30개소가 증가하여 67개소가 되었으며 2008년에는 86개소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Table 1 참고)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천안, 아산 지역의 안전관리 대행기관을 선정하고, 현황과 안전관리대행 업무 및 역할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안전관리 대행기관에서의 안전관리대행 업무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장의 안전관리 규정 제정지도 (수정, 보완시)
- 2)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지도(연1회, 수시)
- 3) 사업장 방문 정기점검 실시 (월 2회 이상)
- 4) 정기점검 결과 개선 사항과 근로자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5) 위험기계 기구의 안전 장치 확인 (안전장치 구입시)
- 6) 보호구 확인 및 착용 지도 (수시)
- 7) 무재해 운동 활성화 지도
- 8) 100인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운영지도
- 9) 재해조사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지도 (재해 발생시)
- 10) 사업장 안전교육 사항 지도 및 지원

- 11)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한 보조자의 지도 감독
- 12)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의 작성지도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
- 13)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지도
- 14) 기계기구 자체검사 실시 지도
- 15) 제반 안전관련 상담
- 16) 기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주와 협의된 사항

2.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대상 회사는 연구의 제한적인 여건 때문에 안전관리자 상주 업체는 천안아산안전관리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대행회사는 충남 아산 H대학 산학협력 가족기업 중 대행업체에 위탁한 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향후에는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과의 합동연구로 전국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설문내용은 근로자들의 현황 및 안전 수준, 의식 상태를 설문지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지의 구성은 개선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총 15문항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일반적인 사항 | 4 문항 |
| 2) 제도 및 체제에 대한 사항 | 6 문항 |
| 3)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 | 3 문항 |
| 4) 기타 관련 사항 | 2 문항 |

설문지는 선정된 업체에 배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근무업체 10개소와 대행기관에 의해 안전관리를 받고 있는 업체 10개소를 선정하여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었다.(Table 2 참고)

선정된 업체에는 각각 10부씩의 설문지를 배포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2. 선정업체 및 설문지 배포 수

그룹	대상	선정 업체 수	설문지 배포 수
(A)	안전관리자 근무 업체	10 개소	10(개소) × 10(명) = 100(부)
(B)	대행기관 관리 업체	10 개소	10(개소) × 10(명) = 100(부)

Table 3. 설문지 응답 요약 - 일반적인 사항

설문	응답	안전관리자 근무업체 (A)그룹	백분율(%)	대행기관 관리업체 (B)그룹	백분율(%)
산업재해 경험	있다	11	12%	21	25%
	없다	80	88%	64	75%
업무 만족도	매우 만족	5	5%	2	2%
	비교적 만족	16	18%	10	12%
	보통	55	61%	45	53%
	불만족	12	13%	22	26%
	매우 불만족	3	3%	6	7%
회사 업무량	대단히 많다	5	5%	9	11%
	비교적 많다	25	28%	33	39%
	보통이다	50	55%	34	40%
	약간 적다	10	11%	7	8%
	아주 적다	1	1%	2	2%
작업 위험도	대단히 높다	5	5%	6	7%
	비교적 높다	23	25%	33	39%
	보통이다	47	53%	37	44%
	안전하다	15	16%	7	8%
	매우 안전하다	1	1%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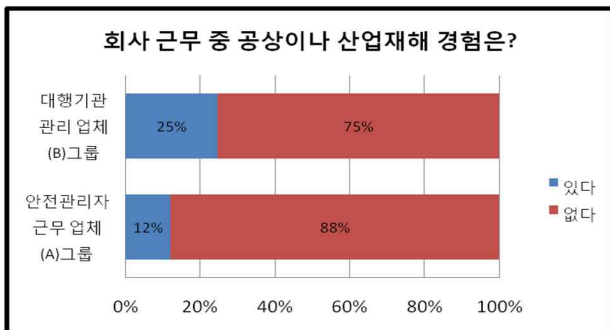


Figure 1. 공상이나 산업재해 경험에 대한 설문

3. 설문 분석 결과

선정된 연구 대상은 (A)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근무업체 10개소와 (B)대행기관에 의해 안전관리를 받고 있는 업체 10개소를 선정하여 각각 10부씩의 설문지를 배포 하여 조사를 하였다. 이 중 회수된 설문지는 (A)그룹 91부 (B)그룹 85부로 배포된 설문지 총 200부 중 회수된 176부의 설문지를 통해 분석을 하였다.

3.1 일반적인 사항

일반적인 사항에 관해 4개의 문항으로 설문을 하였으며 회사 근무 중 공상이나 산업재해의 경험 유무에 대해서 (A)그룹의 12%가 '있다'라고 답하였고 이에 비

해 (B)그룹은 25%가 '있다'라고 답해(Figure 1 참고)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가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근무회사보다 다소 높은 산재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업종, 회사규모, 근속년수 등 기타의 요인도 작용하는 바 상호 관계는 별도의 심층 연구를 필요로 한다.(Table 3 참고)

이 밖에도 업무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A)그룹의 16%, (B)그룹의 33%가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어서 (B)그룹이 업무의 불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량에 대한 설문에는 (A)그룹과 (B)그룹 모두 많은 편으로 조사되었으며, (B)그룹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무시의 작업 위험도에 대한 설문에서도 (A)그룹과 (B)그룹이 모두 '위험도가 높다'라고 답했다.

3.2 제도 및 체제에 대한 사항

제도 및 체제에 대한 사항은 6개 문항으로 설문조사 하였다.(Table 4 참고) 그 중 회사의 관리감독자들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설문 문항에서 (A)그룹은 '매우 또는 비교적 활동적이다'라는 응답이 38%, (B)그룹의 경우 28%로 (A)그룹이 다소 높게 나왔으나 (A), (B)그룹 모두 관리감독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근로자들은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Figure 2 참고)

설문응답자의 안전보건관리 지식수준에 대해 (A)그룹과 (B)그룹 모두 낮은 편으로 (B)그룹이 더 낮은 편으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B)그룹에서 안전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채널이 (A)그룹보다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회사에서 안전과 생산 활동 중 우선 순위를 정하는 설문에서 (A)그룹의 75%와 (B)그룹의 76%가 생산이 우선이라고 답하고 있다.(Figure 3 참고) 이를 미루어 보면 회사나 정부차원에서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보건 활동에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A),(B)그룹 모두 사업주의 안전의식 관심 부족이라 답하였다.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행동이 (A)그룹 38%, (B)그룹 36%로 대행업체 근로자가 불안정한 행동에서 안전관리자 상주업체보다 양호한 결과는 대행요원들의 활동의 결과로 보이며, 불안정한 행동이 재해원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때 상주 안전관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는 안전교육 미실시라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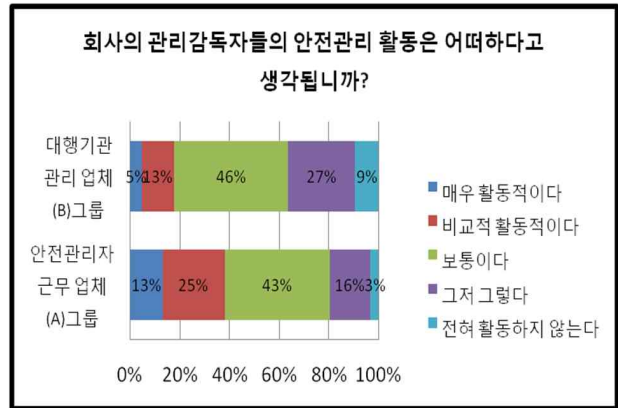


Figure 2. 안전관리 행동에 대한 설문

Table 4. 설문지 응답 요약 - 제도 및 체제에 대한 사항

설문	응답	안전관리자 근무업체 (A)그룹	백분율 (%)	대행기관 관리업체 (B)그룹	백분율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활동	매우 활동적이다	12	13%	4	5%
	비교적 활동적이다	23	25%	11	13%
	보통이다	38	43%	39	46%
	그저 그렇다	15	16%	23	27%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	3	3%	8	9%
안전보건관리 지식수준	매우 높은 편이다	7	8%	2	2%
	높은 편이다	16	18%	7	8%
	보통이다	43	47%	41	49%
	낮은 편이다	21	23%	31	36%
	매우 낮은 편이다	4	4%	4	5%
안전과 생산 우선순위	안전	18	20%	13	15%
	생산	68	75%	64	76%
	동일하다	5	5%	8	9%
안전보건활동 장애요인	사업주의 안전의식 관심 부족	28	31%	39	46%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관심 부족	18	20%	21	25%
	근로자의 안전지식 수준 부족	27	29%	20	23%
	모르겠다	18	20%	5	6%
산업재해발생 근본원인	불안전한 행동	35	38%	31	36%
	안전교육 미 실시	13	15%	18	22%
	작업환경 및 시설미비	13	14%	17	20%
	안전보호구 미 착용	9	10%	11	13%
	기타	21	23%	8	9%
안전지식/교육 충분성	매우 충분하다	13	14%	5	6%
	충분하다	20	22%	10	12%
	보통이다	36	40%	30	35%
	부족하다	17	19%	29	34%
	매우 부족하다	5	5%	11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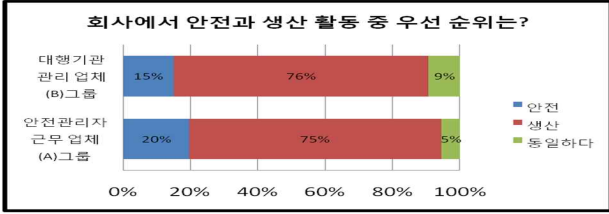


Figure 3. 안전과 생산 활동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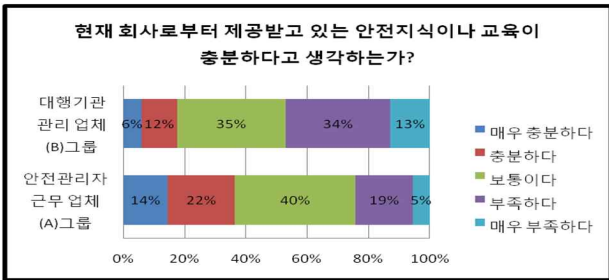


Figure 4. 안전지식 교육의 충분성에 대한 설문

‘현재 회사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안전지식이나 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서는 (A)그룹의 24%, (B)그룹의 47%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B)그룹이 (A)그룹보다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안전대행 요원들의 활동이 물리적,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3 안전 교육에 대한 사항

안전 교육에 대한 사항은 3개 문항으로 안전보건 교육이 실제 안전업무에 도움이 되는지와 교육의 방법과 수준에 대해 설문조사 하였다.(Table 5 참고)

안전보건 교육이 실제 안전업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A)그룹과 (B)그룹 모두 ‘보통’ 또는 ‘형식적이다.’라고 답하였으며 (A)그룹이 (B)그룹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안전보건 교육의 교육 방법은 (A),(B)그룹 양쪽 모두 이론 중심의 교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실무 또는 이론과 실무가 함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Figure 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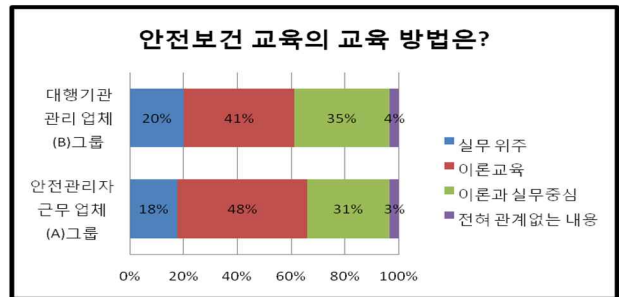


Figure 5. 안전 보건 교육 방법에 관한 설문

Table 5. 설문지 응답 요약 - 안전 교육에 대한 사항

설문	응답	안전관리자 근무업체 (A)그룹	백분율(%)	대행기관 관리업체 (B)그룹	백분율(%)
안전보건교육 실용성	매우 도움이 된다	3	3%	2	2%
	도움이 된다	17	19%	8	9%
	보통이다	45	50%	45	54%
	형식적이다	21	23%	25	29%
	매우 형식적이다	5	5%	5	6%
안전보건 교육방법	실무 위주	16	18%	17	20%
	이론교육	44	48%	35	41%
	이론과 실무중심	28	31%	30	35%
	전혀 관계없는 내용	3	3%	3	4%
안전교육 강사수준	매우 높다	3	3%	2	2%
	높다	8	9%	7	8%
	보통이다	63	70%	55	65%
	낮다	13	14%	16	19%
	매우 낮다	4	4%	5	6%

Table 6. 설문지 응답 요약 - 기타 관련 사항

설문	응답	안전관리자 근무업체 (A)그룹	백분율(%)	대행기관 관리업체 (B)그룹	백분율(%)
안전표지판 부착	충분히 부착되어 있다	28	31%	17	20%
	부착되어 있다	40	44%	42	49%
	부족하다	20	22%	21	25%
	매우 부족하다	3	3%	5	6%
	전혀 없다	0	0%	0	0%
전담안전관리자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71	78%	69	81%
	필요하다	10	11%	4	5%
	보통이다	10	11%	12	14%
	필요없다	0	0%	0	0%

또한, 안전 교육 강사의 수준에 대한 설문에는 (A),(B)그룹 모두 ‘보통이다’ 또는 ‘낮다’라고 응답하고 있어 안전관리자의 교육 능력이 향상되어야만 하거나 교육 능력이 높은 교육자로부터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3.4 기타 관련 사항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설문은 2문항으로 회사내의 안전 표지판 부착과 전담안전관리자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Table 6 참고)

회사 내에 안전표지판 등의 홍보표지 부착에 대해 (A),(B)그룹 모두 ‘충분히 부착되어있다’, 또는 ‘부착되어 있다.’라고 답하여 모두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전담 안전 관리자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A)그룹 78%, (B)그룹 81%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여 두 그룹 모두 전담 안전 관리자가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Figure 6 참고)

이 외에도 자유기입 방식으로 설문된 안전보건 관련 개선 사항 문항에는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답변들이 조사되었다.

- 1) 형식적이거나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안전관리는 하지 말아야한다.
- 2) 회사의 안전 관리자가 안전 업무에만 전담할 수 있는 환경과 업무를 편성해야 한다.
- 3) 안전관리대행으로 한 달에 1~2번 방문해서는 부족함이 많다.
- 4) 안전 관련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
- 5) 안전 관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회사에도 지원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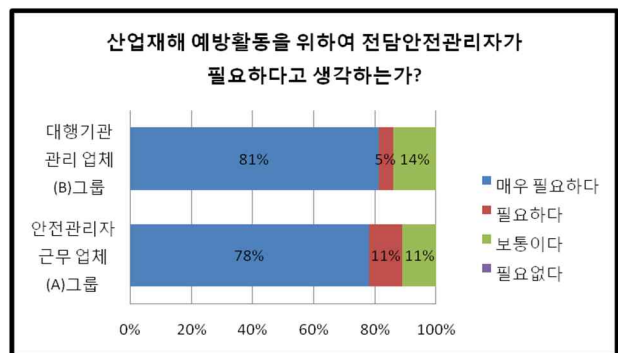


Figure 6. 전담안전관리자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4. 결 론

본 연구 결과 정규직 안전 관리자가 상주하는 사업장과 안전관리 대행기관을 통해 안전관리를 하는 사업장에 대한 비교 분석결과 대행업체가 우수한 결과도 있었으나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상주업체가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 1) 안전관리 대행기관을 통해 안전관리를 하는 사업장이 우수한 결과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사업장에 비하여는 낮게 평가되었다.
- 2) 안전 보건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이론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의 효과가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형식적이며 교육 강사의 수준이 낮은 편이다.
- 3)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전담 안전관리자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응답과 같이 정규직 안전 관리자가 상주하는 사업장과 안전관리 대행기관을 통해 안전관리를 하는 사업장 양쪽 모두 안전관리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담 안전 관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 안전관리 대행기관을 통해 안전관리를 하는 사업장이 정규직 안전 관리자가 상주하는 사업장에 비해 전체적으로 다소 낮게 평가 되었다. 이로 인한 산업재해의 발생도 간과할 수 없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 대행기관을 통해 안전관리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의 현실화와 정부의 일정부분 지원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이며, 대행회사에서도 1개월에 2회 방문하는 대행요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적인 여건으로 한정된 연구 결과임을 볼 때 향후 다른 기관과의 협력으로 전국적인 연구조사를 기대하여 본다. 또한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하여 정부를 비롯하여 회사,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무재해·무사고의 명량한 산업사회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5. 참 고 문 헌

- [1] 남철호, “안전관리 대행사업 재해분석”,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안전 69('90.4) pp.76-79, 1990.
- [2] 이용섭 외, “업종별 안전관리대행사례 조명 ; 중소기업 집단안전관리제도 정착방향”,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안전 71('90.6) pp.36-51, 1990.
- [3] 이근오, 지영근, “안전관리 대행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논문집 43('96.7) pp.3-14, 1996.
- [4] 지영근, “안전관리 대행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 산업대학원, 1995.
- [5]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관리 대행사업 상반기 분석과 전망”,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안전 86('91.9) pp.36-44, 1991.
- [6] 김윤선, “산재저감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제 9권, 4호, pp.67-70, 2009.
- [7] 김동하, 김주홍, 임현교, “중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안전관리대행제도 개선방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안전학회, pp.251-254, 2003.
- [8] 대한산업보건협회, “안전보건 의식 수준과 향상방안”, 제163권, pp. 1-2, 2007.

저 자 소 개

이 만 수



호서대학교 안전공학과 석사,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기업체에서 20여년간 안전, 환경, 소방분야 실무 경험이 있으며 기업체 안전진단 및 전문강사, 겸임교수를 거쳐 현재는 호서대학교 융합기술연구소와 안전보건학과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소: 충남 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호서대학교 조형과학관 306